

“전법포교 잘하는 인재양성이 목표”

교육원장 현응스님 ‘승가교육 방향’ 밝혀



교과과정 표준화작업 착수
3월부터 승가대학서 시행
중앙승가대 2013년 도입

사이버 동영상 강의도 시행
법제별 교육프로그램 연구
교육교재 개발·제작 병행

승가교육 강화는 교육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역점사업이다. 교육원은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과 교재 개발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교과과정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을 필수·선택·일상수행 등으로 나눠 필수 32개 교과목과 선택 7개 교과목 등 총 39개 교과목을 4년간 수확하도록 했다. 또 조석예불, 사시불공, 범회, 불사 등 불교의식과 영불의례, 좌선, 108침회, 사중수입, 대중 윤례에 나 배우공양, 각종 승의 등 일상

에서 공포한 한글영불의례를 지도함으로써 한글영불 대중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원은 영불지도교수를 위촉해 각급 교육기관을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4급 및 5급 승가교시에 교육결과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동영상 강의도 시행한다. 필수교과목 중 교육을 담당할 스님이 부족한 과목에 한해 교육원에서 동영상 제작을 계획할 예정이다. 1학기에는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포교방법론, 불교와 사회 강의, 2학기에는 세계종교의 이해, 중관사상, 불교와 동서철학 등 6개 교과목 강의를 준비 중이며, 각 과목당 총 12강의 동영상 제작·보급한다.

이와 함께 행사교육, 기본교육, 법제별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한편,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도 병행한다.

승가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고시제도도 개선한다. 2급, 3급, 4급, 5급 등 법제별 고시유형 개선 및 유형에 따른 출제문제를 개발하게 된다.

이밖에도 불교세계화 및 한문 불전 번역 전문인력 양성과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교육 강화, 승가교육 매거진을 통한 교육행정 소식 공유,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출가에비학교도 준비하고 있다.

어현경 기자 ehyunk@bulgco.com



“희망의 빛 전하는 불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56년 임진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회장 지승스님은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화 성향이 진행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모든 국민과 중생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호 기자

사찰 토지 무상으로 쓰면서 국유지 사용 임대료 내라니...

총무원장 지승스님, 국립공원공단에 “긴밀협력” 당부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국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반해 사찰은 임대료를 내고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인사차 예방한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사진)에게 이같이 경쾌했다.

이날 예방에 참석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정광수(불교신문 주간)는 “사찰이 장기간 사용중인 국유지에 대해 적지 않은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한 매입

이나 사찰 토지와 맞교환이 가능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정 이사장은 “현행 제도상 국유지의 매입은 불가하지만 맞교환은 협의가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국가기관은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사찰의 관리도 제한하면서 사찰이 장기간 사용중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



신재호 기자 shinjh@bulgco.com

열악한 환경 속 119대원 ‘격려’
총무원장 스님 설맞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이 설 연휴를 앞두고 종로소방서를 위로 방문했다.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지난 17일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유건철 소방서장과 환담을 나누는데 이어 소방시설을 점검해 살펴보고, 구조대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조활동 하느라 고생 많다”며 “가기가 있는데 늦게 방문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기관에서 관심 갖고 활동해 줘 감사하다”며 “올해 연동축제 때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유건철 서장은 “종로소방서는 한국불교 일반직인 조계사를 비롯해 문화재, 외국대사관 등이 밀집된 대한민국 심장부에 위치해 있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항상 깨어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총 500만인 상당의 TV 4대도 기관에 후원했다. 이날 방문에는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스님, 사회공헌 담당스님 등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그동안 국립소득도병원, 하나원, 전원마을, 반야노인요양원 등의 복지시설을 매달 한박씩 방문했다.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자비나눔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co.com

“새터민 도움 절실”

포교원장 지원스님 칠장사 격려 ‘하니원’에 겨울 생활용품 보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사진)이 추운겨울을 힘겨워 보내고 있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의 푸를 보시했다. 포교원장 스님은 지난 17일 안성 칠장사(주지 지강스님)에 겨울 외투와 목도리 등을 전했다. 이번엔 전해진 물품은 겨울 점퍼 450벌, 바람막이 재킷 120벌, 신발 150벌, 목도리 등으로 시가 2300여만원에 달한다. 이번엔 전해진 의류와 신발은 지원스님의 지인

이자 육지장사 신도인 정혜와 씨와 재원스님이 함께 후원한 것이다.

칠장사는 지난 해부터 포교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인 안성 하나원 불교법회를 후원하고 있다. 일요법회나 정기법회를 주관하는 것은 물론 되소하는 모든 새터민에게 이불을 한



어현경 기자 ehyunk@bulgco.com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귀중승관련 종령 공포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지난 17일 ‘귀중승 입적에 관한 령’ 개정안과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을 각각 공포했다.

‘귀중승 입적규정’에서 종령으로 변경된 ‘귀중승 입적에 관한 령’에

따르면 귀중승(歸衆僧)은 매년 6월 30일까지 자필유언장과 신원조서서들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귀중 신청을 할 수 있다. 계단위원회를 거쳐 총무원에서 귀중을 최종 승인하게 되면 귀중 전 종단 탈출확인서(또는 탈출공고), 종단 통일가사 제작 확인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귀중승은 귀중승인 후 2년 이내에 종단 기본

교육기관에 입방해 기본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명시했다.

템플스테이 사찰의 지정과 해지,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은 1장 총칙, 2장 운영사항 지정 및 평가, 3장 운영사항 운영 및 지원, 4장 위원회 설치, 부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인택 기자 parkint@bulgco.com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효일당 범행대중사 영결식 봉행에 대한 감사의 글

귀의 삼보하유고

지난 1월 15일 열반하신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효일당 범행대중사의 영결·다비식을 1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큰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스님, 사부대중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해량하여 주시길 바라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헌신하신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불기2556년 1월 19일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효일당 범행대중사 문도대표 헤광 합장

효일당 범행대중사 추모 일정

차례	팔달사(수원)	1월 21일(음 12.28) 토요일 오전 10시
2차	팔달사(수원)	1월 28일(음 1. 6) 토요일 오전 10시
3차	팔달사(수원)	2월 4일(음 1.13) 토요일 오전 10시
4차	팔달사(수원)	2월 11일(음 1.20) 토요일 오전 10시
5차	팔달사(수원)	2월 18일(음 1.27) 토요일 오전 10시
6차	팔달사(수원)	2월 25일(음 2. 4) 토요일 오전 10시
49차	팔달사(수원)	3월 3일(음 2.11) 토요일 오전 10시

문의(팔달사) : 031-256-7990

